

5.25~26일 전국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응 태세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25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에 제주도,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26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해안, 지리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80~150mm(최대 남해안·지리산 200mm 이상·제주산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제주산지 50~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연휴 기간 각 기관의 호우 대응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긴급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 국조실, 행안·기후·국토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특히 이번 호우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만큼 방치된 도로 표지판, 옥외광고물 등 대로변에 설치된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철거하거나 보수한다.

빗물받이, 우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은 토사나 쓰레기로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고,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은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저지대 주거지역은 차수벽,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한다.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은 비가 지속될 경우 수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인 통제를,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지반이 약한 곳은 사전 예찰과 응급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5월은 각종 지역행사, 영농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집중호우 시 하천변, 농수로, 공사장 주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강수로 지반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황임을 고려해 경남 산청 등 산불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운영,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선행강수에 이어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번 호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사태·하천변·지하공간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재난포털

산 사 태 → 붕괴 위험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하천 재해 → 휩쓸림 위험



비 오기 전 점검

야외활동 자제,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발밑 조심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하천변, 배수로, 해안가 근처 피하기

지하공간 침수 → 침수 위험



지하공간에서 즉시 대피,
수방자재 사전 배치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비 내리기 전 이동



지하공간, 지하차도, 침수도로 피하기



행정안전부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 ①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 ②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③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④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산지



오전 9~12시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공무원, 이동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하천

-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② **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오전 6~9시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지제

차량

비 내리기 전 사건 이동

<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지 하 차 도

< 비 내리는 중 >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어르신

비바람 올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가족, 이웃, 이·동장 전화번호 집에 붙이기

아들·딸 번호
010-000-0000
이동장 번호
010-000-0000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 미리 챙겨요
안경,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미리 확인

대피소와 대피소 가는 길 미리 알아봐요
가까운 대피소 읍·면·동사무소에 물어보기

미리 대피하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이웃과 함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이동하기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동해요
공무원, 이·동장이 위험하다고 하면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기

하천 주변, 산길, 논, 배수로는 위험해요
배수로/논둑, 하천/해안가, 산 주변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금지



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반지하주택,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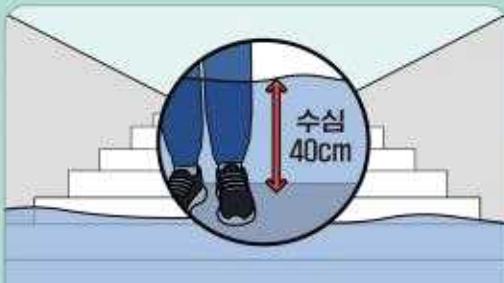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 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
(약 40cm) 전 신속히 탈출
※ 가급적 운동화 착용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



침수 대비

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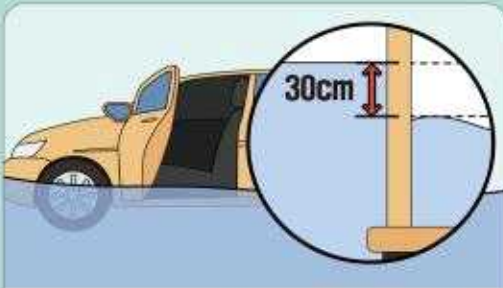
교량,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